

## “울산지사 폭발사고에 대한 사과문”

한국석유공사(사장 김정래)는 지난 10월 14일 공사가 운영하는 울산석유비축기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데 대해 발주자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.

이번 불의의 사고로 인해 고인이 된 두 분께 삼가 조의를 표하며 고인의 유가족, 재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

현재 원인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, 고용노동부,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경찰에서 면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, 누구의 잘못을 떠나 우리공사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고가 발생한 사실만으로도 책임을 통감하며,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히 임해 정확한 원인규명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.

또한 관련기관 및 시공사와 협조하여 조속한 사고 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차후에는 또다시 유사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거나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.

다시 한번 사상자 및 유가족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리며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.

2016년 10월 17일  
한국석유공사 사장 김정래